

## 2005 열린우리당 청년대회 축하 메시지

존경하는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열린우리당 청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그 추웠던 겨울날 언 손을 비벼 가며 헌신적으로 뛰어 주신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 열망과 기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밤잠을 설쳐 가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주신 분들, 자기 주머니를 털어 가며 유세장을 찾아 주신 분들, 그리고 희망돼지 모금으로 마음을 모아 주신 여러분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담긴 뜻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혁과제들을 속 시원히 풀어내 주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경기를 진작시켜 우리 청년들이 마음먹은 대로 취업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정말 잘하지 않느냐.’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니다. 결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다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토대만은 분명히 다져 놓겠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 국민을 격정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혁과 통합, 처음 약속 그대로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겠습니다.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안보도 안정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국민이 한데 힘을 모으면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집시다. 전진하는 역사에 대한 믿음, 국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갑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애정과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